

한미 “北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러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

軍 “우리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로 대응 가능”

한미가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공동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6일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활강하며 상승하는 등 ‘풀업(Pull-Up)’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속력을 증감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것)을 하다 최종 단계에서는 70도 이상의 진입 각도로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낙하할 수 있다. 풀업 기동 역시 이런 회피기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평가한 결과 이날 발사된 미사일 2발의 비행거리는 모두 약 600km였다. 전날

발표한 비행거리와 다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탐지레이더의 상실 고도 아래서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을 향해 발사해 탐지레이더의 상실 구역이 조금 더 확대됐다”며 “하지만 (상실 구역이 거의 없는) 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미사일은 우리 군 탐지레이더로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이번 미사일이 유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5월 발사 미사일과 이번 발사 미사일 모두 시험발사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 보강하고 있다. 자체 전력화 예정인 ‘M-SAM-배치 2’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9·19 군사합의 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사는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북한이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사 관계자는 이 문장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당연히 위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동쪽을 향해 발사한 이번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北 소형목선 NLL 월선...軍, 이송·예인 조치

합참, “선원 3명 탑승...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정보조사 진행 중”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즉각 출동해 이송·예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일 밤 23시 21분쯤 선원 3명이 탄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월선해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28일 새벽 2시 17분쯤, 목선은 5시 30분쯤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각각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목선이 월선한 이유 등에 대해 합참은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km 해상(연안 기준 20km)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우리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28일 오전 0시 18분쯤 고속단정에 탄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km 지점에서 목선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선원 3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전사 요원이 선박을 최초 발견했을 때 이 선박의 마스트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크기는 10m로,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군이 경계작전을 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목선을 예인한 이유에 대해 “목선이 최초 발견될 당시 인근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동해 NLL을 월선하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

합참 제공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목선의 월선 지점과 발견 지점이 남쪽 영해였다는 점, 목선의 선명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됐다는 점 등도 예인 조치 배경으로 들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승선한 3명 가운데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인지 여부

는 조사 중이다. 그는 “선원들은 (월선한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편집=남기선 기자

http://www.kima.re.kr

2019 하반기 『한국군사』 논문 공모 안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 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7년 이래 2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외교·안보부문)에 선정된 기관입니다. 『한국군사』는 군사 분야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군사학 관련 전문가 (예비역, 현역, 교수, 연구원, 학생) | | | | | | | | |
|---------------|---|--------|--------|--------|--------|----|-------|-------|------|
| 논문 공모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 / 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군사전략 / 군사사 / 군사사상 무기체계 및 장비 / 방위산업 전반 안보 및 국방 분야와 관련한 정치 / 외교 세계 여러 국가의 국방정책 / 군사문제 군사과학 및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응용 기타 군사학 관련 주제 | | | | | | | | |
| 시상안내 |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최우수</th> <th>우수(2편)</th> <th>장려(4편)</th> </tr> <tr> <th>상금</th> <td>150만원</td> <td>100만원</td> <td>70만원</td> </tr> </table> <p>* 수상논문은 『한국군사』에 게재, 기타 참여한 논문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p> | 구분 | 최우수 | 우수(2편) | 장려(4편) | 상금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 구분 | 최우수 | 우수(2편) | 장려(4편) | | | | | | |
| 상금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 | | | | |
| 논문 작성 / 제출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홈페이지 원고 양식 참고)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이용 및 제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 | | | | | | | |
| 접수 마감일 | 2019년 10월 31일 | | | | | | | | |
| 문의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 ☎ 031-727-8116 | | | | | | | |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